#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라

## (사도행전 18:24~28)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라'
이 시각에도 천국은 풀가동 중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의 나실인 서약과 본문에서 아볼로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나실인 서약의 취지를 기억해야 하며,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요한의 물세례의 허와 실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도 천국이 풀가동 중인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풀가동 중인 천국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천국의 풀가동 상태는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영인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제를 반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각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인 마음을 받으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회적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오르신 사건은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내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하여 동일시할 때에 영인 마음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구원의 길이고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될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궁금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 시각 예수님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올라간 마음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아직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를 유지하는 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일체가 되어 계십니다. 이 하나 되심으로부터 샘솟는 평강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나와 하늘나라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발산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성

도들의 영과 천군천사들이 영원한 황홀감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풀가동되는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정부기관이 풀가동되든 학교가 풀가동되든 백화점이 풀가동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더러 우리를 위해 가동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나 한 사람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하여 24시간 풀가동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령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는 날마다 출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강의에는 출석하지 못할지라도 천국에는 날마다 출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출근하고 출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출근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풀가동된 채로 낭비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승진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가 않을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출석하고 출근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풀가동 중인 천국을 흘려보내거나 낭비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진짜 직업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날마다 풀가동 중인 천국에 출석하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산물인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절대 평강에 우리의 마음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인 마음이 천국에 출근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특산물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을 모른다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으며 평강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천국에 출근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은 천국의 앞마당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지혜와 절대 사랑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며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능력, 절대 지혜, 절대 사랑, 절대 평강이 흘러넘치는 천국의 앞마당으로 끌어올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은 지금도 풀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직장이 없더라도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천국의 모든 존재가 나를 기다리며 풀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사도 바울의 나실인 서약과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실인 서약을 수행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실인 규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포도나무 소산은 그 무엇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세 방면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육체 자체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기대되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며, 소원성취를 통하여 얻는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은 나실인 서약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나실인 중에는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점이 나실인 규정과의 연관성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을 흘려보내지 않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출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탈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보좌 우편에 이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과정을 따라갈 때 마음은 천국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과 연관된 의미를 모른다면 천국의 출근은 불가능하고 천국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게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도 세례 요한과 관계된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면 풀가동 중인 천국을 흘려보내고

낭비하게 되는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덴 선교 이후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에서 나실인의 대표인 세례 요한의 나실인 규정을 준수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세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마음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물세례는 이러한 오감을 통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격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죄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가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인격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규정을 수행한 이유는 풀가동되는 천국을 낭비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풀가동되는 천국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물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 규정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절대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천국 가는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풀가동 중인 천국을 흘려보내게 되고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의식의 바탕에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바람을 절대로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결심에 틈새가 생기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거리를 찾고, 세상에서 만족할 거리를 찾고,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나를 위해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은 흘려보내지고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볼로의 상태와 변화를 통해 풀가동되는 천국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아직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 죽는 자리가 예수를 믿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주를 하는데 첫 번째 주자가 준 바통을 받아들고 그대로 멈춰 선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자가 바통을 받았으면 자기 몫의 구간을 힘차게 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바통을 받은 상태를 예수를 믿는 최종목적지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받으셨고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예수님이 뛰신 구간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세상을 어떻게 관계하고 세상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의 경계가 세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관계하는 것은 물세례의 의미에서 잘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인격 전체가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누가가 아볼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를 깨달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만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까지 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까지 오르신 구간을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구간을 함께 달리기 위해서는 요한의 바통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세례가 의미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바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에 이르신 예수님의 구간을 따라 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와 나실인 규정의 의미가 생활 속에서 바탕이 되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음을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받으신 상태를 진리의 완성으로 보았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각에 천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갈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를 위하여 풀가동 중입니다. 천국에 출근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아볼로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

굴라 부부는 요한의 세례만을 전하던 아볼로에게 구원과 진리의 완성의 길로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이에 아볼로는 비로소 천국에 출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린도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게 하고 그 후에 아볼로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천국에 출근하는 자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생각과 관심이 이 세상 안에 머물러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재정 문제 등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서 하나 되고자 해본 적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면, 마음은 지금 이 시각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내 마음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처럼 세상에 막혀서 천국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도 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천국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산물로써 참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 천군천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빨려 들어온 성도들의 영이 황홀감에 탄성을 발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중입니다. 천국은 오늘도 24시간 풀가동되며 내 마음의 출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출근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를 생활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의 상황을 그리며 의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대해 죽는 십자가 생활화도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출근과 출석을 기다리며 풀가동 중입니다. 천국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켰던 나실인 서약의 취지를 기억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볼로의 경우에서처럼 십자가 너머에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의 상황까지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

다. 그럴 때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고 탈출하는 일도 훨씬 더 잘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모든 단체들은 하나 같이 좁은 문을 만들고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면서 천국으로 출근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주신 취지를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풀가동되고 있는 천국에 출근하고 출석하는 일을 우리의 직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